

신체언어 표상으로 본 동아시아 근대의 노동*

육현승**·김기일***

- I. 들어가는 말
- II. 신체언어와 그 표상으로서 아카이브 구성
- III. 노동 공간에 대한 이미지 아카이브의 정량적 분석
- IV. 노동 공간의 정성적 분석을 위한 매트릭스
- V. 동아시아 근대의 노동 공간에 대한 정성적 분석
- VI. 나가는 말

• 국문초록

근대의 노동 공간은 서구 자본주의와 물질주의의 유입에 의한 사회적 변화와 맞물려 있다. 본 연구가 상정한 1850년에서 1960년까지의 100여년은 특히 산업화로 인한 분업 그리고 대량 생산 시대로의 전환기이다. 아울러 산업화를 통해 노동 분야에서 커다란 변화를 이루는 시기에 해당된다. 동아시아 3국(한, 중, 일)이 이와 같은 산업화를 받아들이는 조건은 물론 서로 다르며 자발적, 비자발적 성격에 의해 그 시기나 양상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시기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노동 공간의 변화 과정은 동일한 방향을 정향해 진행된다고 할 수 있다. 본 분

* 본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1-322-A00034)

** 고려대학교 독일문화학과 교수, 제 1저자

*** 성균관대학교 프랑스어문학과 겸임교수/프랑스어권연구소 책임연구원, 교신저자

석은 근대 동아시아의 노동 공간에 대한 30,001개의 신체언어 영상자료들을 대상으로 총 3,941개의 노동 이미지를 추출하였으며, 여기에서 개별 국가들의 노동 공간 전이의 추이와 관계 및 차이 그리고 특별한 문제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에 앞서 정량적인 분석을 통해 그 자료들의 양적인 데이터가 갖는 의미들을 기록하고 이에 대한 해석을 시도하였다. 이후 노동 공간의 자료들 중 특수성을 보여주거나 대표성을 보여주는 자료들을 골라 이미지에 대한 해석을 시도하였으며 이를 통해 정성적 분석으로 접근해 들어갔다.

• 주제어

신체언어, 동아시아 근대, 노동, 근대성, 체현된 근대성, 아카이브

I. 들어가는 말

본 연구는 동아시아 근대 신체언어의 표상을 통해 체현된 근대성(embodied modernity)을 문화인류학적 관점에서 탐구하기 위한 공동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연구되었으며, 그 중 ‘노동’에 관해 심화시킨 결과물이다. 근대의 노동 공간은 서구 자본주의와 물질주의의 유입에 의한 사회적 변화와 맞물려 있다.

본 연구가 상정한 1850년에서 1960년까지의 100여년은 특히 산업화로 인한 분업 그리고 대량 생산 시대로의 전환기이다. 아울러 1차 산업에서 종사하던 많은 인구들이 산업화를 통해 노동 분야에서 커다란 변화를 이루는 시기에 해당된다. 동아시아의 3국(한국, 중국, 일본)이 이같은 산업화를 받아들이는 조건은 물론 서로 다르며 자발적, 비자발적 성격에 의해 그 시기나 양상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근대화는 곧 산업화와 등식을 이룰 수도 있음으로 인하여 3국 역시 지리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노동 공간의 변화 과정은 동일한 방향을 정향해 진행된다고 할 수 있다.

시각언어는 음성언어와 문자언어가 드러낼 수 없는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자료를 통해 주제에 접근함으로써 노동이 갖는 역사적 근대성을 기존의 연구들과는 다른 차원에서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를 위해 근대 동아시아의 공간에 대한 30,001개의 신체언어 영상자료들을 대상¹⁾으로 노동 공간에 해당한 총 3,941개의 사진 및 동영상 자료를 추출하였으며, 본고에서 노동 공간 전이의 추이, 그리고 관계 및 차이, 아울러 특별한 문제성 등을 도출하고자 한다. 우선 본 연구는 정량적인 분석을 통해 그 자료들의 양적인 데이터가 갖는 의미들을 기록하고 이에 대한

1) 본고의 연구대상인 30,001개의 자료는 한국연구재단 토대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11년에서 2014년까지 3년 여 간 수집된 자료로써 고려대학교 응용문화연구소 내 서버에 구축되어 있는 자료라는 사실을 밝힘.

해석을 시도하였다. 이후 노동 공간의 자료들 중 특수성을 보여주거나 대표성을 보여주는 자료들을 골라 이미지에 대한 해석을 시도하였으며 이를 통해 정성적 분석을 하였다.

II. 신체언어와 그 표상으로서 아카이브 구성

1. 신체언어 표상의 중요성

신체언어는 “말을 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이나 뜻을 나타내는 방법으로서는 신체적 동작이나 신호”²⁾를 사용하는 비언어적 의사소통행위에 속한다. 버드휘스텔(Birdwhistell)은 인간의 대면 커뮤니케이션에서 “30%~35%가 언어에 의해서 전달”된다고 주장하고, 더 나아가 메라비언(Mehrabian)은 “전체 메시지의 93%가 비언어적 요소에 의해 행해진다고 주장한다.”³⁾ 본 연구에서 더 중요한 신체언어의 표상이 갖는 의미는 신체언어가 단순히 생물학적 생리적 표현만이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산물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일정한 사회와 문화적 공간 속에서 지속적으로 의미를 획득하며, 이러한 표상들을 통해 역사적, 문화적 실재들을 이해하고 접근해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까닭에 본 연구는 시각자료에 구현된 신체언어의 표상이 음성언어 및 문자언어만큼이나 일정 민족 및 사회 공동체의 정서와 정신세계를 보여주며, 그것의 역사, 사회, 문화의 내용을 포착할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결국 신체언어의 표상은 개별 문화적 전통과 사회가 상호작용하는

2) *Longman Dictionary of English Language and Culture*, 3rd edition, Pearson ESL, 2000.

3) D. G. Leathers, *Nonverbal Communication Systems*, Boston: Allyn and Bacon, 1976, p.4., 추계자, 「비언어적 요소인 한, 독 신체언어 기호의 비교분석」, 『독일어문학』 47집, 1998, 94쪽에서 재인용.

문화적 동역학에 의해 형태화된 몸, 얼굴, 동작을 내포하며, 이로써 상이한 시공간에 따른 고유한 문화적 속성과 구조를 읽을 수 있다는 추론에 기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단순히 생물학적인 신체를 넘어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으로 구성된 개념에서 접근하게 된다.

2. 아카이브 구성의 원리

본 연구는 동아시아 근대 노동의 신체 언어적 표상을 분류 구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매트릭스에 의거해 이를 재구성하였다. 우선 시기적으로 근대에 대한 구분에 국가적, 역사적, 문화적으로 기준을 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본 연구는 1897년 중국의 청일전쟁의 패배를 기점으로 전후 약 100여년, 그러니까 1850년에서 1960년까지의 시기를 연구대상 시기로 삼았다. 이 시기는 1868년 메이지 유신, 1894년 중국의 아편전쟁, 1897년 대한제국의 선포 등 동아시아 3개국의 중화체제가 무너지고 새로운 서구 질서가 동양의 문화적 고유성을 변화시켜가는 시기로서 유효하며, 또한 제국주의의 세계질서가 종말을 고하고 새로운 질서가 등장하는 시기로 구획되며, 이를 통해 동아시아의 개별 특수성과 복잡성이 서구의 가치체계들에 의해 비교 될 수 있는 유사한 성격을 제공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자료로 제공된 매체는 앞서 언급한 바대로 크게 공연예술(연극과 무용), 시각예술(회화, 조각, 판화, 사진 등), 영상예술(다큐멘터리, 동영상, 영화 등)들의 자료를 추출하여 사용했다. 아울러 원 자료를 생산한 주체를 동아시아인들과 서구인들로 구분하여 대상을 포착하는 주체의 시각을 고려했다.

신체언어표상을 구분하고 해석을 위한 매트릭스로는 우선 버드휘스텔의 동작학을 모델로 삼았다. 그는 “의사소통적 가치를 갖는 것으로 증명된 신체 동작의 패턴화되고 학습된 양상들”을 체계화하여 신체 동작의 생리학적

표상들을 구분하는 예비동작학(prekinesics), 미시동작학(microkinesics), 맥락을 통한 사회적 동작학으로 구분하고 있다.⁴⁾ 다음으로는 미국의 인류학자 홀(E. Hall)의 근접공간학을 기반으로 삼고 있는데 이는 신체표상이 포착된 공간의 기호학에 도움을 준다.⁵⁾ 이는 신체언어표상의 사회적 공간적 맥락을 해석가능하게 한다. 또한 얼굴 표정에 대한 기호적 해석을 위해 에크만과 프라이슨(Ekman & Friesen)의 ‘얼굴행동코드시스템(Facial Action Coding System(FACS))을 통해 정서적인 의미들을 해석할 수 있는 기반으로 삼았다.⁶⁾ 마지막으로 시선의 문화생태학이라고 할 수 있는 표상들의 시선에 대해 와츠로빅(Watzlawick)의 메타커뮤니케이션 공리를 기반으로 삼아,⁷⁾ 아르길과 딘(Argyle & Dean)의 시선의 사회적 기능⁸⁾에 대해서도 참고하였다.

이상과 같은 근대 동아시아의 신체언어표상들을 해석하기 위한 이론적 기반을 통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유형적 매트릭스를 구성하고 이를 해석하였다. 다음의 표는 이에 대한 것을 개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
- 4) Ray L. Birdwhistell, *Kinesics and Context: Essays on Body Motion Communication*,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70.
 - 5) E.T. Hall, *Studies in the anthropology of visual communication, Handbook for Proxemic Research*, Washington: Society for the Anthropology of Visual Communication, 1974.
 - 6) P. Ekman, *Facial Action Coding System: Manual*, Californi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1993.
 - 7) Paul Watzlawick, Janet Beavin Bavelas, Don D. Jackson, *Pragmatics of Human Communication: A Study of Interactional Patterns, Pathologies, and Paradoxes*, New York: Norton, 1967.
 - 8) Michael Argyle and Janet Dean, “Eye-contact, Distance, and Affiliation”, John Laver, Sandy Hutcheson eds., *Communication in Face to Face Interaction: Selected readings*, Harmondsworth: Penguin, 1972.

<표 1> 시각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자료 분류 및 세부 유형화 방법⁹⁾

유형화 기준	유형화 내용
시각매체의 종류	공연예술, 시각예술, 영상예술 등 각 분야에서 수집된 물리적 자료가 기록된 매체의 종류별 유형화 (회화, 사진, 동영상 등)
신체언어의 생산 맥락 및 생산주체	- 동아시아인/ 서구인 - 한국/ 중국/ 일본 등 국가별 특징, 공통점과 차이점
신체성의 미시구조	정지자세, 동작자세별 구분
신체 부위	손, 팔, 다리, 얼굴, 전신 등
신체성의 영역	일상생활, 의례, 여흥, 무예 등
신체성의 맥락	- 공간별 (미시 공간/ 거시 공간, 공적 장소/ 사적 장소 등) - 시간별 (아침/ 낮/ 저녁/ 밤, 연대적 구분 등)
신체적 작용	2인 이상의 신체가 등장할 때의 다양한 상호작용에 따른 유형화 (이데올로기적 관계와 권력 관계 등)
신체표상에 동반 도구	의상, 무기, 오브제 등에 따른 유형화
신체 사회 문화적 실천	젠더, 계급 및 계층에 따른 유형화
정서 표현	기쁨, 슬픔, 분노, 사랑 등의 표현에 따른 유형화

Ⅲ. 노동 공간에 대한 이미지 아카이브의 정량적 분석

노동 공간에 대한 정량적 분석은 30,001개의 영상자료 중 3,941개의 노동공간의 자료들을 추출하여 이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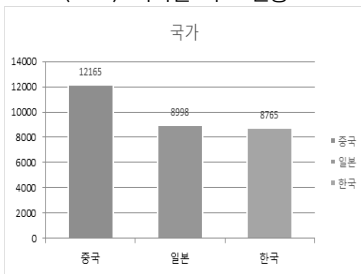
이에 대한 분석의 매트릭스로 우선 본 연구팀이 함께 상정한 총 13개 부분, 즉 개별 국가별, 생산의 주체, 매체, 행위자 수, 성별, 나이, 표정, 자세, 몸짓, 감정, 신분 및 직업, 거리, 그리고 복장에 대한 이미지의 구분을 통해 자료들을 분석하고 그래프화 하였다.

9) <표1>은 과제번호: NRF-2011-322-A00034 토대연구과제의 연구제안서에 포함된 내용임을 밝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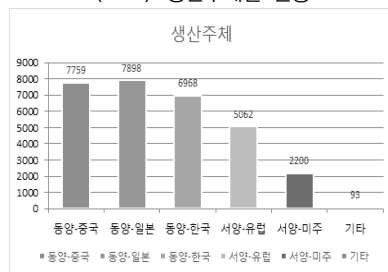
1. 국가별, 생산주체별 자료 선집의 현황

우선 자료의 국가별 선집의 양은 단연 중국의 영상자료들이 절반 이상, 약 58%를 차지하며 다음으로는 한국자료가 28%, 일본의 경우가 18% 정도이다. 개별 국가들의 자료의 양적 차이는 수집의 문제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동일한 정량적 조건을 통해 자료를 구축할 필요가 없는 이유에 따라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이는 크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다. 또한 3,941개의 자료 중 가장 적은 일본의 경우가 18% 정도이고 이는 약 700여장의 자료의 방대한 양이 됨으로 비교나 질적 분석을 위해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생산주체의 경우 유럽 및 미주 사람의 생산자가 속한 경우가 54%이고 동양인에 의해 생산된 것이 46%나 되어서 다른 공간들보다 동아시아의 자발적인 영상생산의 개입이 두드러져 보이는 공간이기도 하다.

<표 2> 국가별 자료 현황¹⁰⁾



<표 3> 생산주체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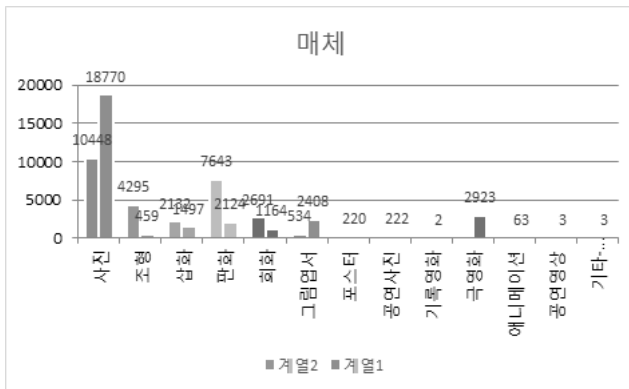


10) <표2-14>는 <과제번호: NRF-2011-322-A00034>토대 연구의 최종결과물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작성된 내용임을 밝힘.

2. 자료의 미디어별 구분

생산된 미디어의 개체를 살펴보면 사진이 가장 다수를 차지하며 약 42%를 점유하고 있다. 공연사진을 포함하면 더욱 비중은 커진다. 기록영화와 애니메이션까지 일종의 기술매체에 의거한 매체라고 상정한다면 기술매체에 의거된 자료는 72%의 다수를 차지한다. 이 밖의 매체로는 판화가 27%로서 수동적 작업에 이뤄진 매체 출현물이고, 나머지 광고 등의 자료들이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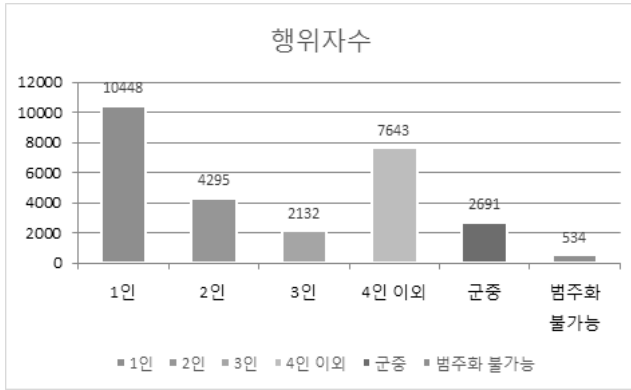
〈표 4〉 미디어별 구분



3. 행위자들의 수에 의한 구분

콘텐츠 내용들의 통계들은 우선 행위자들의 수에 의해 구분하면 개인 단독의 경우가 가장 많은 비중의 42%이며, 2인이 17% 그리고 3인이 9%이며, 4인 이상의 집단 노동의 경우가 약 27%를 차지했다. 아울러 군중으로 분류될 수 있는 다수의 노동 작업 역시 적지만 4%정도의 비중을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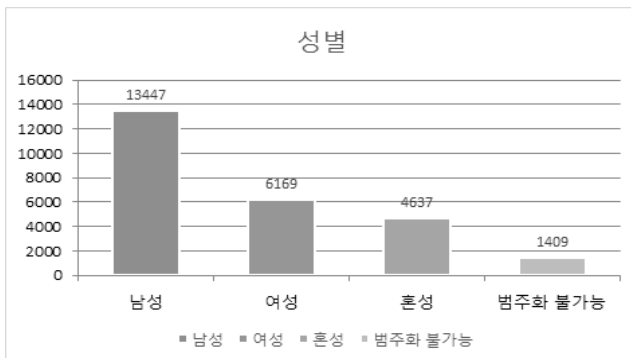
〈표 5〉 행위자 수에 의한 구분



4. 행위자들의 성별에 의한 구분

성별로는 당연히 여성의 사회적 활동이 제약받던 시기임으로 남성의 노동 비율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약 65%정도의 통계를 차지하고 있다. 여성의 노동은 약 20%정도로 조사되었는데, 이 중 가사노동의 비율이 상당한 경우로 파악된다. 그밖에 남녀 혼성으로 일하는 경우가 약 10% 정도이며 범주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도 약 5%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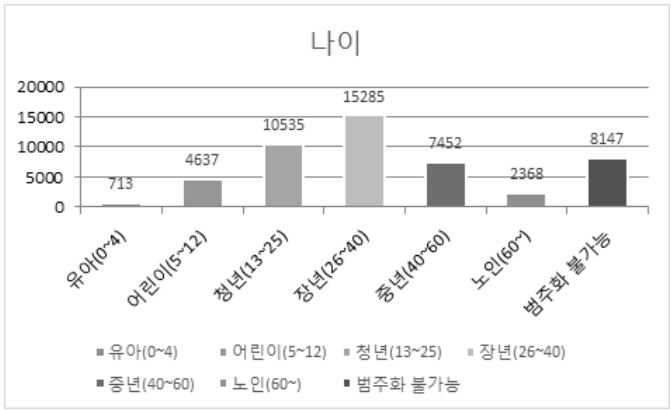
〈표 6〉 행위자 성별에 의한 구분



5. 행위자들의 나이에 의한 구분

나이의 경우 26~40세 장년의 노동인구가 34%로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중년(40~60세)은 15%, 청년(13~25세)의 경우가 약 19%로 조사되었다. 또한 노인의 비중은 약 3% 정도이며 특별히 주목할 점은 어린이(5~12세)의 비중이 약 7%나 차지함으로써 어린이들이 사회적 또는 가사 노동에 일정 정도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울 수 있다. 이러한 아동의 노동은 근대와 현대의 차이를 식별하는 지점 중 하나이기도 하다.

〈표 7〉 행위자 나이에 의한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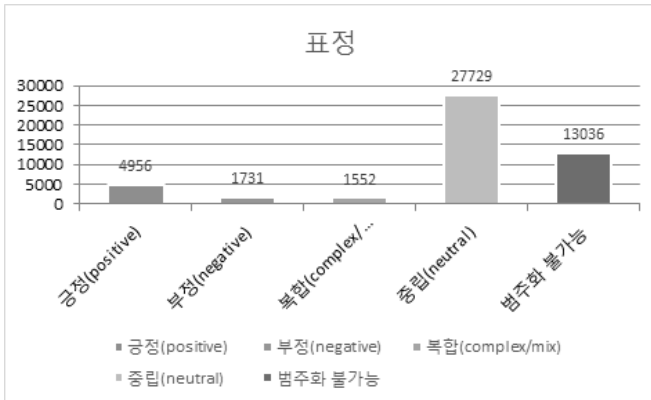


6. 행위자들의 표정에 의한 구분

노동 공간에서 그들이 드러내 보이는 표정은 중요하다. 동아시아인들의 근대의 신체적 표상을 해석하는데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동양인들은 외향으로 자신의 내면적 감정을 잘 표출하지 않기 때문인데 이 역시 우리는 자료에서도 읽을 수 있다. 거의 57%의 표정자료들이 중립적인 것으로 조사되며 가치판단을 하기 힘들도록 드러난다. 그러나 약

33%의 자료들은 그들의 노동 행위에 긍정적인 표정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부정적이거나 복합적인 표정의 경우는 합쳐서 약 4%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때, 노동의 양상이 변화되고 새로운 비전과 세계를 맞는 노동 공간의 면모를 읽을 수 있다고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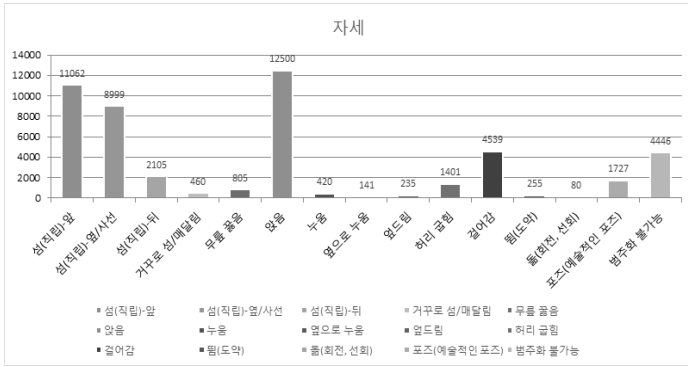
〈표 8〉 행위자 표정에 의한 구분



7. 행위자들의 자세에 의한 구분

다음으로는 행위자들의 자세에 대해 보도록 한다. 자세에서는 직립(앞, 옆, 뒤)의 비중이 가장 많다. 약 절반의 데이터가 서서 일하는 행위들을 포착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앉거나 무릎을 꿇고 하는 자세가 약 29%정도 이고 극한적 자세들도 존재하고 있다. 그 밖에도 허리를 굽히거나 뛰거나 하는 자세의 노동 행위의 자료들도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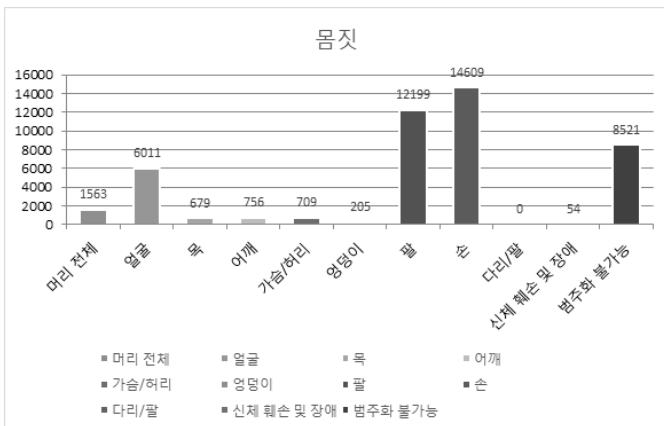
〈표 9〉 행위자 자세에 의한 구분



8. 행위자들의 신체몸짓에 의한 구분

다음의 신체적 표상은 몸짓에 해당한다. 노동에서 몸의 구성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팔과 손이다. 이들의 비중이 거의 7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간의 노동은 가장 많은 손과 팔의 비중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재삼 확인시킨다. 그 밖에도 가슴, 허리, 어깨 등도 존재하며 머리

〈표 10〉 신체몸짓에 의한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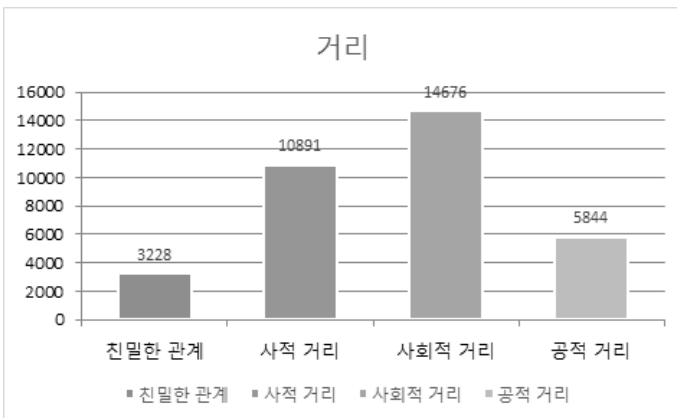


나 영등이도 소수이지만 존재한다.

9. 대상들과의 거리에 의한 구분

신체언어의 표상은 본래 대면 커뮤니케이션을 전제로 하며 이 때 중요한 것이 대상들의 거리이다. 이는 친밀한 관계, 사적 거리, 사회적 거리, 공적 거리 등의 구분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거리의 표상을 자료 속에서 조사한 바로 노동 공간에서의 거리는 사회적 거리를 가장 많이 보여주고 있다. 이는 약 62%로 드러나며, 사적 거리의 공간이 약 26%로 다분히 가사노동의 상황이거나 가내 수공업적 노동의 거리가 주요하다. 친밀한 관계에서 노동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공적 거리의 공간적 격차 역시 노동 공간에서는 많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노동이라는 공간이 갖는 특별성이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일정 공동체적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 이 자료의 데이터를 통해서도 인식하게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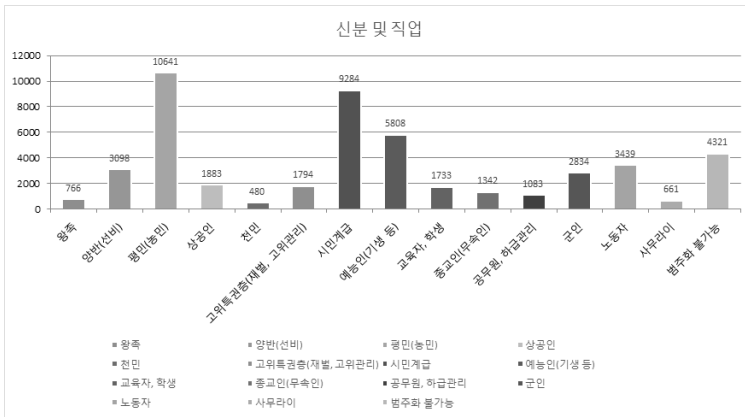
〈표 11〉 대상과의 거리에 의한 구분



10. 행위자들의 신분에 의한 구분

자료 내의 콘텐츠의 분석에서 직업과 신분을 파악해본다면 44%정도가 평민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이 신분에 농민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노동 공간이 농업에 집약적으로 이뤄져 있다는 사실 역시 깨달을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근대에 들어서 도시화에 의해 농민에서 노동자 계급으로 전락하게 된 노동자들이 약 33%를 차지하고 있다. 아직은 소수이지만 약 1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계급이 상공인들이다. 또한 부르주아 시민 계급은 약 1%정도로 미미하다. 동아시아 근대는 아직 상공인과 시민 계급의 성장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기타 나머지는 아직 분화되지 않거나 전통적인 양반과 귀족 천민의 계급들로 그 수에서는 미미한 정도를 기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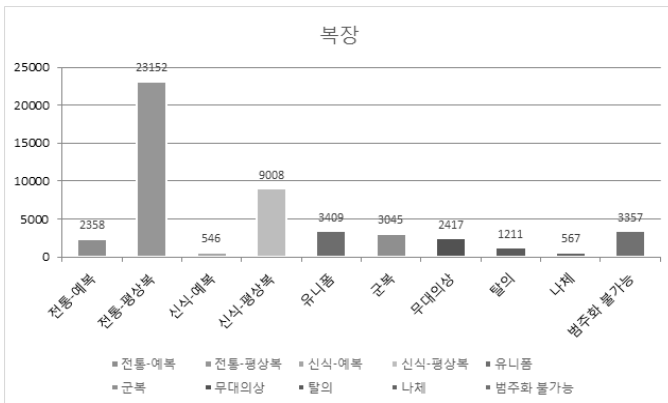
〈표 12〉 신분에 의한 구분



11. 행위자들의 복장에 의한 구분

신분과 함께 외적으로 사회적 계급의 표상을 드러내는 것이 복장이다. 가장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전통평상복이며 신식평상복도 13%를 차지하고 있다. 이로써 노동 공간은 일상 공간의 연장으로서 기능함을 알 수가 있다. 주목할 것 중 하나는 유니폼의 등장이며 약 5%정도를 자료 데이터가 보여준다. 직업과 회사라는 새로운 자본주의적 시장질서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얘기될 수 있다.

〈표 13〉 복장에 의한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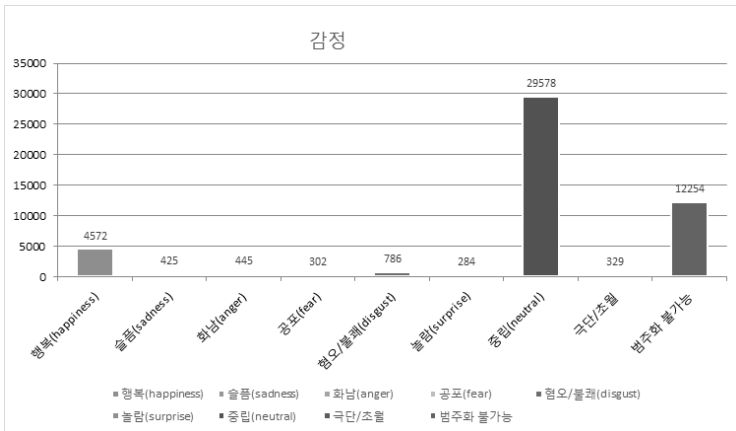


12. 행위자들의 감정에 의한 구분

다음으로는 노동의 공간에서 그들의 표정이나 몸짓이 보여주는 감정적 상태의 표상에 대한 데이터들이다. 이 데이터들은 표정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들의 모습 속에서 감정의 상태를 읽기 어려운 중립적 상태가 다수를 차지하며 73%정도에 이른다. 두 번째로 많은 것은 화난 듯 한 표정으로 약 29%정도를 차지한다. 근대의 삶은 동아시아에서 노동의 의미들을 아

직 개인에게 되돌려주지 못하거나 자발적 성격의 노동을 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표 14〉 감정에 의한 구분



IV. 노동 공간의 정성적 분석을 위한 매트릭스

1. 노동의 개념 및 전개

노동이란 개념은 가장 기초적인 인간 행위 중 하나를 의미한다. 그러나 철학적, 학문적 용어로 노동은 근대에 정립되었으며, 인간이 근대산업 사회에서 자신의 지위를 반성적으로 생각하면서 개념의 체계성을 획득하였고, 근대에서 자연을 지배하거나 물질로부터 생성한 상품의 생산과 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기술적 행위와 관련하여 정의되었다. 보편적으로 그 행위가 힘들다는 것과 고도의 집중을 필요로 한다는 의미가 내재해있다. 아울러 생산적이고 창조적이란 의미도 내재하는데, 산업사회 이전에는 신

의 작품을 노동을 통해 완성한다는 의미나 또한 이를 통한 속죄와 정화의 가치도 포함되며, 그리스 로마시대에 노동과 덕은 배리된 바 있다. 노동을 하는 것은 덕성을 기르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파악했던 고대에서부터 (아리스토텔레스 u. Cicero) - 르네상스에 이르러 기술의 인간(Homo Faber)에 대한 통찰이 시작되었다. 노동은 19세기 후반 이후 자연과학의 발견들, 산업의 전개, 수공업에서 기계 산업으로 전개, 자본주의의 성장, 노동투쟁 등을 통해 국가나 조직뿐만 아니라 교육 및 철학에서도 중요한 문제가 된다.¹¹⁾

2. 노동과 소외-마르크스를 중심으로

서구의 부르주아 사회가 인간 노동에 발원시킨 의미는 인류사적으로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니며, 여전히 우리들 세계에까지 유효하다. 이에 대해서 마르크스의 노동에 대한 분석과 노동으로부터 인간의 소외는 본 연구를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하다. 마르크스에게서 노동은 인간의 삶에서 가장 “창조적인 원천”이자 “삶을 생성시키는 생명”으로 이야기 한다. 그는 데카르트의 ‘사유하는 존재로서 나’가 아닌 “창조적이고 주체적인 활동으로 노동하는 나”로 근대의 인간을 고쳐 말한다. 인간의 삶은 노동을 통해 인간과 자연 사이에서 이뤄지는 상호작용의 과정인데, 그 이유는 노동력이 투사되는 대상이 지구 및 우주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인간의 노동은 동물의 본능적 행위와는 달리 합목적으로 창출된다. 다시 말해 노동은 노동 그 자체로서 만이 아닌 인간의 창조적 행위를 동반하며 시간, 힘, 노력, 기술 등의 생산을 위한 활동 전반을 포괄적으로 의미하며, 이러한 행위로써 이뤄진 생산을 통해서 노동의 의미가 완성된다. 마르크스는 노동과정에 필요한 요소를 노동, 노동 대상, 노동수단으로 구분하며

11) Joachim Ritter, hrsg., *Historisches Wörterbuch der Philosophie*, Bd. 1, Basel: Schwabe, 1971, p.479 이하 참조.

이 세 가지 요소가 충족될 때 노동이 완성된다고 여긴다. 근대의 노동에서 중요해진 것은 노동의 수단인데, 이를 통해 노동대상을 목적에 맞게 변형시킴으로써 효율을 높이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근대 노동의 역사는 노동수단을 통해 가공된 원료를 사용한 역사가 시작된다. 마르크스스이에 주목하며 노동 수단 및 부가가치를 자본가가 착취하는 과정이 자본주의라고 이해한다. 동아시아 근대의 신체언어 표상에서도 노동에 효율을 위해 투입된 노동수단과 부가가치의 착취에 대해 살펴볼 수 있으며 이는 동아시아 근대를 이해하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

3. 소외-자본주의에서의 노동에 의한 소외

소외는 경제활동의 목적이 인간 자신이 생산한 상품을 전유하지 못하고 낯설어짐으로써 본질적 노동의 목적으로부터 소외되는 것을 말한다. (생산물로부터 소외) 자본주의가 구체화되기 이전까지는 생산수단이나 기술이 아직은 인간을 그들의 산물로부터 낯설게 할 만큼 발전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19세기 자본주의가 발달함으로써 인간은 생산과정으로부터 소외당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이는 특히 생산수단을 갖지 못한 노동자들이 생계유지를 위해 고용되고, 자발적인 삶의 창조와 계발을 위해 노동을 하는 것이 아닌 임금노동을 통한 연명의 수단으로 전락함으로써 생겨나게 된다.(생산과정과 수단으로부터 소외) 즉 자본주의에서 인간은 그가 생산한 산물로부터 소외당할 뿐만 아니라 생산방식과 과정에서도 소외된다. 더 나아가 그것은 인간의 유적 존재로부터의 소외로 연장된다. 왜냐하면 소외에 의해 인간의 유적 본질이 개인적인 실존의 수단이 되어버려, 소외된 노동에 의해 인간의 몸, 자연, 정신과 인간의 본질로부터도 소외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동물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대항하는 인간의 장점을 단점으로 변화시켜 그의 현실적인 유적 대상성을 빼앗고, 인간의 비유기적 몸을 그에게서 분리시켜 버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외된 노동은 자

기 활동, 자유로운 활동을 일종의 삶의 수단으로 격하시킴으로써 인간의 유적 생활을 그의 육체적 실존을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 버린다. 따라서 인간이 자신의 유에 대해 갖고 있는 의식은 소외로 인해 인간 스스로를 수단으로 바꾸어 버린다. 결국 소외된 노동은 인간에게서 그 자신의 몸도, 그의 바깥의 자연도, 그의 정신적 본질, 그의 인간적 본질도 소외시킨다.(유적 존재로부터 소외) 아울러 이러한 결과에 의해 인간은 인간으로부터 소외된다. 경쟁을 통한 다른 경쟁자들로서의 인간은 타자화되고, 공동체로부터 인간은 소외되어 부품 및 무기물로 낮설어진다. (인간의 인간으로부터의 소외) 마르크스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소외의 의미를 전체적으로 개관할 수 있다.¹²⁾

노동의 생산물이 나에게 낮설게 존재하고, 나에게 낯선 힘으로서 대립한다면, 그것은 누구에게 속하는 것인가? 나 자신의 활동이 나에게 속하지 않고 하나의 낯선, 강요된 활동이라면, 그것은 누구에게 속하는 것인가?

노동과 노동의 생산물이 그것에 귀속되는, 그것에 대한 봉사 속에 노동이 존재하는, 그것의 향유를 위하여 노동의 생산물이 존재하는 그러한 낯선 존재는 오직 인간 자신일 수만 있다. 노동의 생산물이 노동자에 속하지 않고, 하나의 낯선 힘이 그에게 대립하여 있다면, 이는 그 생산물이 노동자 이외의 다른 인간에게 속하는 것으로서만 가능하다. 그의 활동이 그에게 고통이라면 그것은 다른 인간에게는 향유이고, 다른 인간의 생활의 기쁨이지 않을 수 없다. 신들도 자연도 아닌 인간 자신만이 인간 위에 군림하는 이 낯선 힘일 수 있는 것이다.¹³⁾

마르크스의 이 같은 노동에서의 소외의 분석은 근대 동아시아의 노동의 신체적 표상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중요한 지표를 줄 수 있다. 특히

12) 칼 맑스 저, 최인호 역, 「1844년의 경제학 철학 초고」, 『칼 맑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선집』 1권, 박종철 출판사, 1992, 73~81쪽 참조.

13) 위의 책, 81쪽.

농촌공동체에서 산업공동체로의 전환과정에서 그들의 신체 언어적 표상들에는 이 같은 소외의 모습을 읽을 수 있으며 이는 또 하나의 해석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V. 동아시아 근대의 노동 공간에 대한 정성적 분석

한중일의 근대화 과정에서의 노동을 살펴볼 수 있는 매트릭스는 우선 산업 발전 양상을 주시하여 계급의 분화나 새로운 직능의 등장을 주목할 수 있다. 이는 시민, 소시민, 노동자 계급 형성과 추이과정을 추적함으로써 이해할 수 있다. 아울러 클라크의 산업분류, 1차, 2차, 3차 산업의 전개과정을 추적하거나, 분업과 협업, 직업의 분화 등에 대해 고찰해 볼 수 있다. 아울러 산업과 노동은 근대화의 공간적 지형을 변화시킨다. 즉 농촌과 도시 공간의 해체와 변화, 그리고 공장에서의 대량생산의 시작과 생산라인 및 제조업의 등장의 문제들, 그리고 산업노동자와 전문가, 기술자, 블루컬러의 등장에 대해 소상하게 드러내보여 준다. 산업부르주아와 임금노동자의 구분과 뽀띠 부르주아의 등장과 역할에 대해 그리고 산업화 시작을 통해 가사와 여성 노동의 전이과정에 대해서도 주목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다섯 단계의 역사적 추이과정으로 구분해서 고찰하게 된다.

1. 분화되지 않은 노동 공간

근대가 진행되기 이전의 노동 공간은 비록 그 노동이 힘이 들고 어려운 과정을 상정하고 있더라도 아직은 노동의 의미들이 분화되지 않고 그 대가가 자신에게로 되돌아오기 때문에 경쟁이나 노동의 소외의 모습은 드러나지 않는다. 심지어 노동 공간은 자연과 일치되어 있는 듯 남획되거나 탐닉되지 않고 심지어는 목가적이며 전원적인 분위기마저 보인다. 그

러나 그 이면에는 아동의 노동이나 여성의 힘든 노동의 공간들이 숨겨져 있었다.



<이미지 1> 1890년 일본¹⁴⁾



<이미지 2> 1902~3년 한국

이러한 의미들을 위의 사진들은 잘 드러내고 있다. 동아시아 근대의 시작은 아직 여성과 아동들에게 교육과 제도의 혜택을 제공하지 못했으며 가사노동과 가정을 위한 노동의 공간에 그들을 위치 지웠다.



<이미지 3> 1880년대 한국



<이미지 4> 1880년 일본

시장경제와 관련하여서도 이 당시의 노동 공간은 수공업적이며 가정의 안쪽에 초점이 두어진 노동 공간을 상징한다. 아직 도시화가 진행되지 않

14) <이미지 1-18>은 <과제번호: NRF-2011-322-A00034>토대 연구의 최종결과물로서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작성된 내용임을 밝힘.

왔고, 노동의 분화나 전문화보다는 생산과 소비의 질서들이 통합적인 상태인 공간이다.

2. 노동 공간의 변화

다음의 과정은 노동 공간의 변화의 시작을 의미하는 자료들이다. 위의 사진에서 개별적 수공업을 영위하던 공간은 집단적 수공업의 형태로 바뀌고, 대도시의 이주를 통해 도시화가 진행됨으로써 도시의 공간에서 집단임금노동자로 전락한 이들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그들의 표정이나 자세에서 소극적이면서도 힘든 삶의 일상들을 엿볼 수 있다.



〈이미지 5〉 1900년 중국



〈이미지 6〉 1900-1910년 일본



〈이미지 7〉 1928년 일본



〈이미지 8〉 1932년 중국



〈이미지 9〉 1932년 중국



〈이미지 10〉 1932년 일본

위의 사진들은 도시화 과정과 교육받은 엘리트들이나 부르주아적 시민 계급들의 모습과 노동의 기반을 제공하는 도시 소시민들의 출현을 드러내 보여주는 사진들이다. 도시로 이주하게 된 수많은 노동인력들은 소상 공인적인 서비스업이나 도시의 하층민들로 전락해서 노동을 통해 도시의 하부를 지탱하는 노동인력으로 거듭나게 된다. 전문적 기술이나 소비적 산업에서의 일들에 종사하게 된 모습을 위의 사진들은 보여준다.

3. 공장노동의 시작

노동은 이제 공장이라는 공간으로 이전하게 된다. 가정이나 부락을 중심으로 수공업의 집단적 행동을 취하던 노동의 공간은 공장이라는 가정이나 마을과는 분리된 공간을 짓고 그 속에서 근무라는 일의 현대적 의미의 노동이 진행되게 된다. 이러한 공간에서 그들은 이제 산업노동자로서의 초기 면모와 전문적 분업적 역할을 수행하는 노동을 수행하게 된다. 노동은 또한 대규모 집단화 된 성격을 띤다. 이제 노동은 혼자서 수행하는 가내수공업이나 생산과 결과를 모두 함께 하는 총체적 생산방식이 아닌 분업화되고 협업화된다. 공산혁명을 통해 남여 평등을 실현하고자 했던 중국의 경우는 다른 국가들보다 앞서 여성 역시 산업근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한다.

집단적, 산업적, 도시적 노동의 출현과 이의 전문적, 분업적, 협업적 노동의 등장과 진행과정은 동아시아 근대의 노동 공간의 의미를 규정해주는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산업화는 이제 노동을 인간의 노동 대신 기계를 조작하고 이를 관리하는 노동의 형태로 변화된다. 아울러 도시의 확대 및 건설을 위해서도 보다 전문적이고 위험을 무릅쓴 도시 근로자들 역시 등장하게 된다.



〈이미지 11〉 1956년 중국



〈이미지 12〉 1932-46년 중국



〈이미지 13〉 1940년 중국



〈이미지 14〉 1940년 중국



〈이미지 15〉 1950년 중국



〈이미지 16〉 1950년 중국

4. 사무직 노동자의 등장과 전개

이와 더불어 전문화되고 지식계급에 의해 운영되는 회사원들의 등장이 주목될 수 있다. 즉 자본주의와 대도시의 노동 공간에 기업화된 시장경제를 통해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무직 노동자 계급들의 모습이 점차 노동의 공간에 자리하게 된다. 이는 근대에서 현대로의 이행을 보여주는 하나의 변화 양상으로서 노동 공간의 변화양상을 통해 동아시아의 근대가 현대로 전이되어가는 단면을 인식하게 하는 신체언어자료라고 말할 수 있다.



〈이미지 17〉 1950년 중국



〈이미지 18〉 1952년 일본

이상과 같이 근대 노동 공간의 변화과정은 전근대적인 공간의 목가적, 전원적 표정과 함께 아동과 여성의 험하고 투박한 노동공간에서부터, 점차 가내수공업적 공간의 대량화와 도시화의 빈민성을 거쳐, 공장노동자의 탄생과 집단화, 협력화, 분업화의 공간 변화를 지나며 근대 산업사회로의 이행을 완수하며, 더 나아가 대규모 산업 속에서의 노동과 사무직 노동자들의 확대를 통해 근대가 현대로 이행되어 가는 양상을 노동 공간에서 알 수 있게 한다.

VI. 나가는 말

본 연구는 동아시아 근대의 노동 공간을 신체언어 표상을 통해 정량적, 정성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근대의 동아시아에서 변화되고 있는 노동의 양상과 그 변화 그리고 그 시대의 노동을 통한 인간들의 감정 및 태도들 가시화하여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었다. 본 연구가 수집하고 코딩하여 정돈한 전체 3만 여건의 데이터들과 이 중 4천여 건의 노동에 대한 자료들의 추출, 그리고 이를 통해 가능했던 영상자료들에 대한 분석 및 해석은, 문자적이고 추상적인 그동안의 연구들의 한계를 시각화함으로써 구체화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영상자료들에서 표상되는 시각언어를 통해서 노동 공간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목도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고 판단한다.

물론 동아시아, 한중일이 갖는 산업화 및 근대화의 추이나 그들 지역이 갖는 특수성들을 비교하거나 추출해내는 작업은 지면의 관계상 이뤄지지 못했으며 차후의 과제로 남겨야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3개국에 보여주는 근대화 과정의 노동의 문제성을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시각화하고 영상 자료의 통계를 통해 세분화하여 그 구성적 내용들을 보여줌으로써 다양한 후속 연구들을 파생시킬 수 있다고 여긴다.

• 참고문헌

- 추계자, 「비언어적 요소인 한, 독 신체언어 기호의 비교분석」, 『독일어문학 47집』, 1998, 93~118쪽.
- 칼 맑스 저, 최인호 역, 「1844년의 경제학 철학 초고」, 『칼 맑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선집』1권, 박종철출판사, 1992, 25~91쪽.
- Argyle, Michael and Dean, Janet, “Eye-contact, distance, and affiliation”, John Laver, and sandy Hutsheson, eds., *Communication in Face to Face Interaction*, Harmondswroth: Penguin, 1972.
- Birdwhistell, Ray L., *Kinesics and Context: Essays on Body Motion Communication*,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70.
- Ekman, P, *Facial Action Coding System: Manual*,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1993.
- Hall, E.T., *Studies in the anthropology of visual communication, Handbook for Proxemic Research*, Washington: Society for the Anthropology of Visual Communication, 1974.
- Longman Dictionary of English Language and Culture, 3rd Edition*, Pearson ESL, 2000.
- Ritter, Joachim, hrsg., *Historisches Wörterbuch der Philosophie*, Bd. 1, Basel: Schwabe, 1971.
- Watzlawick, Paul, Bavelas, J.B., and Jackson, Don D., *Pragmatics of Human Communication: A Study of Interactional Patterns, Pathologies, and Paradoxes*, New York: Norton, 1967.

Labor in Modern East Asia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epresentation of Body Language

Yuk, Hyun-Seung* · Kim, Ki-Il**

The space of labor in modern times at first engaged with social changes caused by the influx of Western capitalism and materialism. This study has focused on the period of more than 100 years between 1850 and 1960, which is assumed as an epoch-making era of not only the transition into division of labor and mass production but also a sea change of the labor sector in the wake of industrialization. Differences lie in the conditions under which three East Asian nations imported industrialization as well as in the timing and patterns of the characters - voluntary or involuntary. However, it can be said that, despite the differences of periods, the course of changes in the labor space proceeded in the same and linear direction. This research has extracted a total of 3,941 labor-related Images among 30,001 body language-related video data on the labor space of modern East Asia and aims to draw the trend, relationships, and differences as well as the particular problems of the transition of the labor space in the respective nations. Prior to this process, the meaning of the recorded data quantity of the materials will be recorded and interpreted through a quantitative analysis. This study will then collect the materials that show the specialty or the representativeness of the data on

* Professor, Korea University

** Senior Researcher, SKKU

labor space and interpret them before getting access to a qualitative analysis.

Key words: Body language, modern East Asia, labor, modernity,
embodied modernity, archive

필자 E-Mail: johannyuk@korea.ac.kr / kiilkim65@hanmail.net

투고일: 2016년 3월 31일 / 심사완료일: 2016년 4월 29일 / 게재확정일: 2016년 5월 3일